



제37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 기간: 1996.10.16~18.
- 장소: 성남시 실내체육관

여수 喪門煞굿



전라남도

상문살(喪門煞)굿

해설

여수지역의「상문살굿」은 상가에서 무서운 살귀의 침해를 받아 앓는 환자를 치유하는 주술적인 무굿이다.

상문살굿은 다른 무굿과는 달리 무녀와 잼이들이 굿거리예 따라 귀신으로 치장하여 재담과 더불어 노래와 춤과 여러가지 모의적인 놀음놀이가 어울리는 우리의 전통예술인 민속극의 원초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 굿에서의 무가와 주문 내용이 제액초복의 발원성이 강하여 악귀를 내쫓고 무병강녕을 회구하는 무속신앙의 원질성을 보여주는 굿이다.

상문살굿은 남도무속의 치병굿으로는 유일하게 그 원형이 남아있어 남도 무속예술의 원형을 찾는 데 가치가 있는 굿으로서 그의 보존과 전승이 요망된다.

구성과 순서

제 1 주장마당

공수를 받아 환자를 사다리 위에 눕혀놓고 무녀의 주장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이 환자의 주위를 돌면서 절구방아를 찧는 마당

제 2 허장마당

환자의 옷을 입힌 제웅을 환자 대신으로 삼아 헛장사를 행하고 명도에서 온 사자를 전물로 후히 대접하여 환자를 죽음에서 구출하는 마당

제 3 헌식마당

굿판에 모여든 여러 잡신들을 음식으로 대접하여 배송하고 환자의 쾌유를 비는 마당

제 4 살풀이 마당

시루를 엮어놓고 이곳에 환자를 얹히고 무녀가 징을 치면서 상산군웅을 청배하며 그로 하여금 주문을 외우고 신칼로 환자의 체내에 침입한 살귀를 물리치게 하는 마당

여수무속의 현황과 상문살굿 유래

여수의 세습무계는 1970년 까지만 해도 10여개의 무계(단골판)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무부100여명으로 이루어진 신청(대동무계)이 운영되고 신청에는 무진년(1928)에 성안된 70여명의 선생안이 봉안되어 해마다 3월3일, 9월9일에 사당에 제사를 지내왔으나 1980년부터 모두 무업을 떠나고 대동계도 해체되고 현재 마지막 대방이었던(방중선78)만이 옛 신청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고장 무계에 대하여 박중선옹의 증언에 따르면 옛부터 여수 신청굿의 특징은 용왕굿(풍어굿)과 축귀굿(치병굿)였다고 자랑한다. 더욱이 축귀굿중에서도 상문살 물리는 살풀이 행사에서 허장마당, 사자마당, 봉사마당, 추장마당의 굿에 따라 남격이나 무녀들이 귀신으로 치장하여 노래와 춤과 재담과 더불어 여러가지 노름놀이가 어우러지면 인근마을 사람들이 굿판에 모여 밤새워 즐겼다고 그때를 자랑스럽게 회고한다.

진행순서

- 1 주장마당
- 2 허장마당
- 3 헌식마당
 나기마당
- 4 살풀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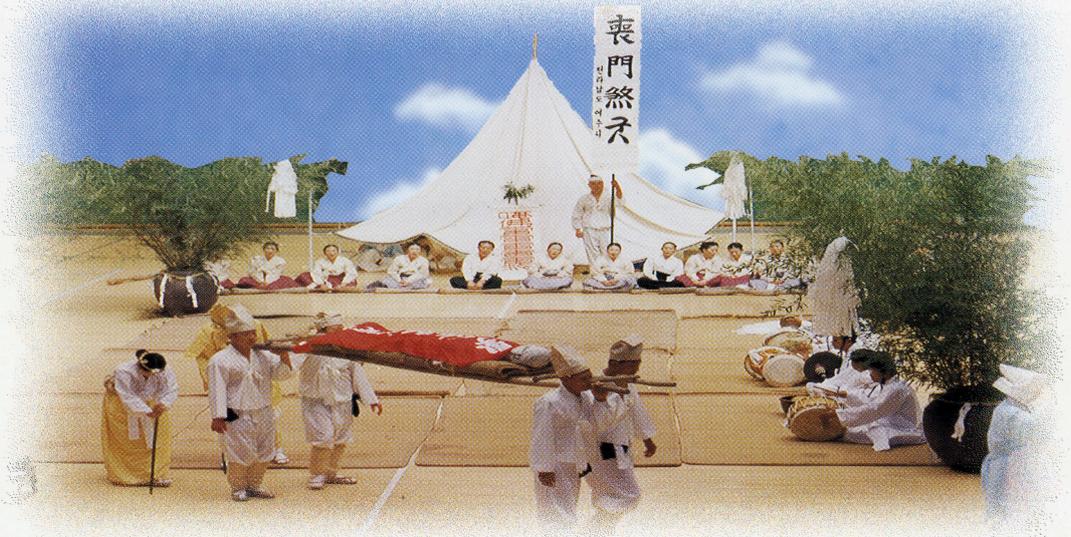


주 장 마 당



- 공수를 받아 환자를 사다리 위에 눕히고 무녀의 주장소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이 환자의 주위를 돌면서 절구방아를 짚는 마당

허 장 마 당



- 환자의 옷을 입힌 제웅을 환자 대신으로 삼아 헛장사를 행하고 명도에서 온 사자를 전물로 후히 대접하여 환자를 죽음에서 구출하는 마당

헌식마당



■ 굿 판에 모여든 여러 잡신들을 음식으로 대접하여 배송하고 환자의 쾌유를 비는 마당

살풀이마당



■ 시루를 덮어놓고 이곳에 환자를 앉히고 무녀가 징을 치면서 상산 군용을 청배하며 그로 하여금 주문을 외우고 신칼로 환자의 체내에 침입한 살귀를 물리치게 하는 마당

1. 주장방아소리

(앞소리)

어중차 주장이야
 제일에는 진광대왕
 제이에는 초광대왕
 제삼에는 송제대왕
 제사에는 오광대왕
 제오에는 염라대왕
 제육에는 변성대왕
 제칠에는 태산대왕
 제팔에는 평등대왕
 제구에는 도시대왕
 제십에는 전륜대왕

(뒷소리)

어중차 주장이야
 어중차 주장이야

..... (이하생략)

2. 허장소리

(앞소리)

과난보살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밤새도록 날새도록
 황천으로 나는 가네
 과난보살

(뒷소리)

과난보살
 과난보살
 과난보살
 과난보살
 과난보살

상두꾼들이 상여체를 들어 어깨 위에 맨다.

중머리장단

어-너 어-넘어어가리
 넘차 너화여

어-너 어-넘어이
 가리 넘차 너화여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오늘 가면 언제 오나

어-너 어-넘어이
 가리 넘차 너화여

북망산이 떨다더니
 저 건너 안산이 북망이네

어-너 어-넘어이
 가리 넘차 너화여

늪어 늪어 만년 주야
 다시 젊지 못하나니

어-너 어-넘어이
 넘차 너화여

등장 가세 등장을 가서
 하나님전 등장을 가세

어-너 어-넘어이
 넘차 너화여

나도 죽으면 이길이요
 너도 죽으면 이길이라

어-너 어-넘어이
 넘차 너화여네

..... (자진모리생략)

3. 혼신놀이

오방신장 철용대신 좌우신령
토지대신 사례삼촌간 사례오촌간
육촌간 칠촌간 팔촌간
구촌간 열에 열촌간 혼신네
고모나 이모나 지모나 악모나 스모나
대모나 여러혼신네 못먹고 못입고
원혼되어 한혼되고 청춘에 가고
여귀혼신 남녀혼신 많이 받아
지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고
이 댁에 뒷물을 밝혀 주시요
병자 정축 험한 난리에
칼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 (이하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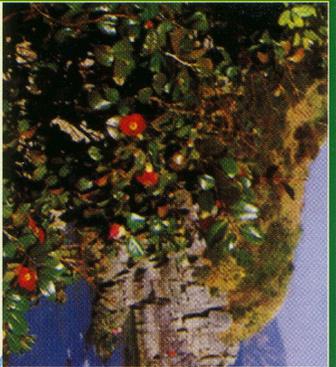
4. 지왕놀이

우줄지왕	삼신지왕	소타랑시
지왕님네	초이레는	자존지왕
열이래는	어무지왕	스무이래는
아부지왕	팔만대장	모시고
한두달에	이슬맺고	두석달에
입덧나고	넉달에는	사색받고
다섯달에	오포받고	반진세를
생길적에	남녀분간	하옵시며
여섯달에	위련삼저	좌우고
십자로	천맥이	돌아있고
일곱달에	칠두열여	간담설개
마련하고	여덟달에	팔색받아
아홉달만에	귀기열여	전전고록
육천설귀를	마련하여	젓줄을
당기실적에	열달에	침노강
..... (이하생략)		

출연자 명단

담당역할	성명	연령	성별
환자	홍공수	70	남
할머니	장도엽	65	여
딸	박미연	45	여
아들	이남훈	40	남
며느리	유선아	40	여
수무당	박경자	65	여
사무	이순심	79	여
무당	임정님	64	여
무당	김공예	45	여
강신무	이정희	38	여
소무	박미정	28	여
잡이	박정동	63	남
잡이	손웅	35	남
잡이	방길용	40	남
잡이	하길오	60	남
창무	김향순	47	여
사자	김정옥	58	남
지왕, 망제	김정만	68	남
사자	박종신	70	남
봉사	최상순	72	남
잡귀	장영화	50	여
잡귀	김용엽	40	여
잡귀	최은아	45	여
잡귀	임성화	35	여
잡귀	김승미	38	여

담당역할	성명	연령	성별
잡귀	성성님	41	남
잡귀	임예진	46	여
잡귀	강은영	48	여
상두꾼	송기형	60	남
상두꾼	정영채	56	여
상두꾼	위태권	60	여
상두꾼	박영수	45	여
상두꾼	정종권	62	여
상두꾼	오형래	53	여
마을사람	백천례	56	여
마을사람	장수엽	60	여
마을사람	양영심	35	여
마을사람	정경자	40	여
마을사람	박종숙	38	여
마을사람	이동엽	45	여
마을사람	이명자	50	여
마을사람	유선화	46	여
마을사람	정순덕	50	여
마을사람	정정자	40	여
마을사람	김미연	42	여
마을사람	배영자	40	여
기수	김재일	38	남
기수	김영만	42	남
기수	김성근	38	남



- 전국 지방도
- 시도
- 구도
- 읍면도
- 지명도

